

다문화, 설화, 신화, 귀신, 미신

동아시아 전통에 따르면 -> 귀신은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존재

<<!--설화, 신화--!>>

(2012)는 2012 아시아 100대 이야기 후보

한국 -

바리공주

아기장수 설화

(2012) 천지왕본풀이

(2012) 은진 서낭자

(2012) 자청비

네팔 -

(2012)소스타니

몽골 -

장가르

(2012)아르스랑대 메르겐 왕

인도 -

마하바라타

(2012) 샤쿰딸라

베트남 -

사랑시장 이야기

(2012) 땀과 꿈

태국 -

두꺼비왕 프야칸캅

수통 마노라

(2012)시 타논차이

인도네시아 -

판지 이야기

(2012) 데위 스리

방글라데시 -

마나사 망갈

(2012) 마닉 찬드라

필리핀 -

아규

(2012) 후드후드 서사시

스리랑카 -

(2012) 다사라타 자타카

싱가포르 - 싱가포르가 특이하게 맘프에 없다..?

캄보디아 -

(2012) 토끼 재판관

중국 -

(2012) 화목란

(2012) 섭한 아가씨

일본 -

(2012) 일촌법

(2012) 파나움베와 페나움베

(<https://www.yna.co.kr/view/RPR20121018005700353>)

기조연설에 나선 고은 시인은 2011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스토리 국제워크숍

‘아시아, 스토리를 말하다’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맞을 세기적인 문학 형식의 개척은 그동안 방치된 아시아의 옛이야기들의

세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함 (lik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 주기도 함)

이에 방현석 아시아문화네트워크 대표는 “아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시아의 신화보다는

서구의 신화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아시아 스토리 국제 워크숍은 아시아 전역에 산재한 스토리의 현황을 서로 소개하고

공동의 연구와 활용을 모색하는 첫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아시아 100대 스토리’는 번역과 현지조사 등을 거쳐

‘아시아 스토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정보원에 비치되며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 다른 장르 예술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505240.html>)

기조연설을 맡은 고은 시인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아시아의 이야기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매혹이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의 조직을 맡은 소설가 김남일은 “디즈니와 할리우드가 이미 아시아의 스토리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줄줄 꿰면서도 길가메시(아랍)에는 깜깜하다”며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적 긍지를 높여나가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11106000038>)

<<!--귀신, 유령, 요괴--!>>

일본 -

의 유령 [유레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이한 정체 //요괴

요괴_ 텐구(새 + 개의 형상)

영화 '음양사'_ 헤이안 시대(794~1185)에 제사를 비롯한 예언, 요괴 퇴치 등을 다루는 음양도

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 음양도를 사용하는 사람을 음양사 [온묘지]라고 불렀다.

일본에서 유명한 요괴 >> 갓파 (물의 요괴),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옴. 전신이 초록색,

머리에 접시를 가지고 있음, 접시가 마르면 안됨, 오이 좋아함, 하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함.

강에 놀러가면 갓파한테 잡혀가니 멀리 가지 마라고 어른들이 얘기함

일본은 섬나라여서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해 귀신이 더 많다고 생각

요괴에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예전에 그림 등으로 많이 남아있음.

에도시대 풍속화, '우키요에' 부터 다양한 요괴 그림이 보전돼 있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공포 만화가 '이토 준자' 등의 사람이 귀신, 요괴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은 많이 없고 이야기만 남아있음

유교 영향으로 한국은 민간신앙을 하층으로 생각하고 그림, 조각등을 없앴.)

태국 - 피이, 원한이 있는 귀신을 의미

/주파수가 달라서 안 보일 뿐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불교의 영향으로 윤회사상에 기반한다. ->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 때가 되면 영혼이 가야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

대표적인 영화 '랑종' _ 귀신을 다루는 의사 (무당) [머피이]

태국에서는 귀신에게 귀엽다고 하는 것도 실례다. 정말 조심스럽다.

태국의 민속 신앙의 대표적 악귀인 피뵘 >> 날음식을 갑자기 찾는다면 피뵘이 씹힌 증상이라 생각.

피뵘 (몸통은 없고 영혼은 있다.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몸에 있는 심장, 간, 장 등을 먹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올라 타 계속 사람을 죽인다.

태국에서는 날 것 먹고 싶다 하면 피뵘 식었냐고 한다.

태국 뉴스에도 나온다. >> '친척들이 11살 소녀에게서 귀신을 빼냈다'

그만큼 태국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

피 크라슈 >> 같은 인간인데 밤만 되면 몸통을 빼고 심장이랑 장만 달고 다니며 (떠다니며) 먹는 것을 찾아다님 (날라다님) 피뵘과 같이 똑같이 날 것을 먹는다.

태국인들이 밤에 옷 말리지 말라는 이유가 피 크라슈가 밤에 먹고 옷에 입을 닳으니까 옷을 말리지 말라 함.

그리고 낮에 누가 피 크라슈인지 알 수 없으니 친구들과 같은 빨대 쓰지 말라 함. 그래서 빨대 같이 안 쓰는 것도 있음.

피 타이탕끌롬 >> 임신한 상태로 죽음. 이 귀신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복수심이 가장 강함. 그 이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식까지 죽게 만들었으니 -> 태국판 전설의 고향으로 유명한 영화 '피막'에서 피 타이탕끌롬을 소재로 다룸.

피 타이 홍 >>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귀신.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귀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리면 피 타이 홍의 소행이라는 괴담도 있음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한다. 원한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함.

이 귀신은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귀신. 귀신 본인 대신에 죽어야 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본인은 태어남.

한국 -

여귀 (뜬 귀신), 원령 신앙

조선시대_ 억울하게 죽었거나 제사 지내 줄 후손이 없거나, 혹은 전염병이 돌 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여귀에 대한 제사 '여제'를 지내준다.

제사는 은혜를 내려준 영혼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례,

허나 요괴라던지 안 좋은 영혼, 귀신은 피해야 할 존재이니 무속의례 (무당, 굿, 푸닥거리)를 통해 쫓아내기도 함

일본의 온요지 처럼 조선시대 때 소격서에서도 실제 도사들이 악귀, 귀신 퇴치 일 등을 함.

동아시아 전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다 포함하는 '음양오행설'(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오행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된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우주가 이뤄지는 원리, 질서들을 파악을 해 점을 본다거나 땅에 있는 풍수지를 본다거나 악귀, 귀신을 퇴치함.

천문, 점술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인 '음양료'의 관직인 '음양사', 국가에서 채용한 관직.

무당과의 차이점 >> 무당들은 possession(접신)을 해 한 맺혔던 거 등 얘기를 해 풀고 나감

이에 반해 도사들과 음양사의 존재들은 특정 주술을 통해 귀신과 요괴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함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요괴) >>

처녀귀신 >>

창귀 >> 자연환경과 연관된 귀신, 호환마마 (호랑이의 습격, 천연두) 를 두려워하던 시절,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신. 창귀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혼으로 호랑이에게 귀속되어 호랑이의 먹이를 찾아줌 호랑이가 너무 무섭기에 죽어서도 종속당하는 영혼.

사회 배경과 귀신 이야기도 연관이 높다. 한국의 요괴나 귀신들은 주로 가족하고 연관이 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귀신, 요괴, 괴물로 설정되는 현상. 마치 남고괴담이 없고 여고괴담 만 있는 것 처럼.

// 음기가 가득 찬 밤에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삼중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천국(하늘나라), 지상(인간들이 사는 땅), 지옥 (인간들 보다 못한 존재들이 있는 지하세계)

밑에 있는 존재는 위에 있는 존재들을 부러워함. 요괴나 귀신들은 인간들을 부러워 함. 인간이 되고 싶어 함. 인간한테 들러붙어 나쁜 짓을 함.

왜 사람들은 귀신, 설화 등에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가? (공포영화 좋아한다거나 즐겨한다거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왈: 뇌과학, 신경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진화 생물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했는데 그런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공포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원시 시대에서 부터 사람들은 작은 현상 하나에도 생존이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공포의 근원은 알 수 없는 존재에서 온다.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미신과 얘기, 금기사항을 만들어 낸 너무 믿는 등 지나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최소 그런 위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면 사람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위협으로부터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략 중 하나) 에서 이러한 바탕으로 귀신 이야기(현대에서는 영화, 웹툰, 웹소설 등)가 전해 내려온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귀신이나 요괴가 되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수인 사람들이다.

귀신, 요괴 이야기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늘 우리가 양지에서 살다 보니 우리 뒤의 드리워진 그림자를 잘 못 읽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신경 쓰게 만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5ORZRG_EZxU)

컴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The Study on Shamanic Myth seen from the Viewpoint of Healing Complex)

(<http://sam.riss.kr/findThesisAnalysis.do?controlNo=000013852510&qry=컴플렉스+치유의+관점에서+본+한국+무속신화+연구+%3D+The+Study+on+Shamanic+Myth+seen+from+the+Viewpoint+of+Healing+Complex&docType=T>)

한국 무속신화와 네팔 신화의 상관성 연구 -바리공주 이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남방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네팔에서 바리공주 관련 자료를 발견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위 네팔의 바리공주 이본은 한국의 기본형에 충실히 일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해안—경상도의 이본군과 더욱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2년 전에 이정재가 연구한 우즈베키탄 자료와의 비교에서 바리공주의 국제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네팔 자료의 발견은 이를 보강하는 의미있는 자료라 하겠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258904>)